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LUMBERJANES: UNICORN POWER

가제 : 럼버제인: 유니콘을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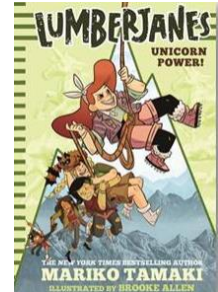
저자 : Mariko Tamaki(글), Brooklyn Allen(그림)

출판사: Harry N. Abrams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모험



- * 20세기 폭스 사에 영화 옵션 계약, 2017년 기준 80만 부 이상 판매된 BOOM! Studios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만화를 바탕으로 한 4부작 시리즈 / 초판 15만부 발행
- * “대범하고 사랑스러운 등장인물들의 활기 넘치는 성격과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 도전이 빛을 더하는 이야기”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 * “원작이 그린 포용과 우정, 팀워크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 있는 시리즈”- 「퍼블리셔스 위클리」

2014년에 만화 시리즈로 처음 등장한 ‘럼버제인’이 멋진 삽화가 포함된 4부작 소설 시리즈로 재탄생했다. ‘하드코어 레이디 타입’이라는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여름 스카우트 캠프에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섯 명의 소녀가 겪는 유쾌하고 신기한 모험을 그린 이야기로, 원작 만화를 만든 네 명의 작가 중 한 사람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하여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7년에 발표된 이 4부작 첫 번째 소설은 2015년에 20세기 폭스 사에 영화 옵션이 판매되고 2016년에는 DC 코믹스와 손을 잡고 ‘럼버제인/고담 아카데미(Lumberjanes/Gotham Academy)’라는 크로스오버 시리즈가 발표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은 원작의 매력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얻었다. 스카우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협동과 배려, 도전 정신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다섯 명의 주인공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시스젠더까지 성 소수자를 두루 대표한다. 기존의 만화 팬들은 물론 럼버제인 시리즈를 처음 접한 독자들도 금방 빠져들 만한 흥미로운 소재와 재기 발랄하고 개성 넘치는 다섯 소녀들의 매력을 금방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퀸젤라 디스크윈 페니퀴켈 씨슬 크럼펫’이라는, 발음하기도 무진장 힘든 이름을 가진 여성이 만든 여름 캠프에 참가한 조, 에이브릴, 몰리, 말, 리플리는 ‘로아노크’ 캐빈에서 함께 지내는 한 팀이다. 캠프장 주변을 둘러싼 방대하고 멋진 숲과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나타나는 강, 그 둘레에 병풍처럼 우뚝 서 있는 산 속에서 다섯 명의 소녀들은 다른 스카우트들과 함께 자연 속을 마음껏 누비며 탐구하고 화창한 여름을 만끽한다. 캠프에 참가한 소녀들은 모두 ‘럼버제인’으로 불린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우정과 배움, 호기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럼버제인의 목표인 배지 따기도 중요한 목표다. 특별한 식물을 발견하거나 배타기, 등산, 달리기 등 각 분야 혹은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 주어지는 배지는 럼버제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 너도나도 최대한 많은 배지를 따기 위해 매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빨간 머리에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으로 최고의 팔씨름 실력을 가진 에이프릴과 큰 키만큼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 다니며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을 잃지 않는 조, 숭바꼭질과 깃발 뽑기에 유독 뛰어난 천재적인 전략가이지만 세상에서 물을 가장 싫어하는 말, 금발을 항상 길게 땋고 그 위에 너구리털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다니는 몰리, 푸른색 긴 띠 모양으로 염색한 머리가 늘 눈에 띄는 리플리까지 로아노크 캐빈의 다섯 소녀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때와 같이 밝은 햇살을 받으며 눈 뜨자마자 숲으로 향한 다섯 친구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식물 전문가’ 배지를 따내겠다는 일념으로 산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진다. 꽃이 피는 식물을 하나만 더 찾으면 배지 획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제각기 흠어져서 신기한 풀과 나무 사이를 살펴보던 그 때, 리플리의 고향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진다. 젓 먹던 힘까지 다 짜낸 듯한 소리로 리플리가 외치는 말은 ‘유니콘!!’이었다.

사실 하드코어 레یدی 타입 캠프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다. 정리 대장인 에이프릴이 늘 끼고 다니는 수첩에 그 목록까지 정리해 둘 정도였다. 매일 돌아다녀도 늘 신기한 식물들이 속속 발견되는 숲은 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법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아쉽게도 다섯 명의 친구들은 아직 한 번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유니콘이 나타난 것이다. 리플리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살같이 달려온 친구들은 하얀 몸에 뿔이 달린, 그림으로만 보던 유니콘이 정말로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기겁한다. 하지만 유니콘은 어딘가로 달아나기 시작하고, 다섯 친구들은 무작정 유니콘을 뒤를 쫓기 시작한다. 이 신기한 동물을 찾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최고의 모험가’ 배지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니콘을 따라간 소녀들은 생전 처음 보는 파란색 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에서 숨을 고르는 유니콘을 발견한다. 식물도감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낯선 꽃을 맛있게 먹는 유니콘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특징이 있었다. 견디기 힘들 만큼 고약한 악취를 풍긴 것이다. ‘겨드랑이 땀 냄새와 앤초비를 섞은 것 같다’는 에이프릴의 말처럼 굉장한 냄새를 풍기는 유니콘은 다섯 친구들을 해독이 불가능한 글자가 적힌 표지판이 세워진 산으로 안내한다. 낯선 산에 고립되어 지금까지 배운 럼버제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야만 하는 다섯 명의 친구들은 과연 위기를 벗어나 진짜 럼버제인이 될 수 있을까? 재미와 함께 성적 정체성,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거리를 가득 던져주는 유쾌한 모험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리코 타마키(Mariko Tamaki)는 화가이자 작가다. 저서로는 Caldecott Honor Book Award와 Printz Award 수상작 This One Summer가 있다.

브루클린 알렌(Brooklyn Allen)은 사바나 예술·디자인 칼리지를 졸업하고 럼버제인 만화 시리즈의 오리지널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했다.

제목 : THE DOWNSTAIRS GIRL

가제 : 지하에 사는 아이

저자 : Stacey Lee

출판사: G.P. Putnam's Sons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8월 13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베트남, 영국 판권 계약**

- * “오래 전 역사지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시대의 이야기를 사려 깊게, 상상력을 더해서 그려낸 놀라운 이야기. 작가 특유의 유머와 매력, 따스함, 지혜가 곳곳에서 반짝인다” - 모리스 어워드 결승작 『CONVICTION』의 작가 켈리 로이 길버트
- * “인물의 목소리에 이끌려가게 되는 극적인 소설.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 그 이해 방식에 따라 현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북리스트』

1890년 애틀랜타의 고급 모자 가게에서 일하는 조는 출근하자마자 여사장의 호출을 받고 달려간다. 맨날 지각하는 동료도 어떤 일인지 일찍 나와 있고, 최근 늘어난 주문 탓에 배달 온 재료들도 많아 북적대는 가게 한 칸에서 사장은 조에게 ‘이제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내뱉었다. 다른 설명도, 안쓰러운 표정도 없었다. 그 한 마디를 던지고 바로 일을 시작할 태세였다. 인근 지역의 잘 나가는 정치인들, 사업가들의 부인과 딸들이 즐겨 찾는 ‘잉글리시 모자 가게’에서 나름 팬이라 부를 만한 단골까지 있는 조는 대체 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심지어 게으르고 손도 느리고 솜씨도 부족한 동료는 내버려두면서 자신을 쫓아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실 딱 한 가지 명확한 이유가 떠올랐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날 수는 없었기에 조는 “혹시 제가...”라고 운을 띄웠고, ‘네가 어쩔 수 없는 일인 건 알지만 그래,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라고 속사포처럼 쏘아 붙이는 사장의 대답이 돌아왔다. 조의 생각이 맞다는 의미였다.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은 큰길로 다닐 수 없다는 규칙,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멀쩡한 현관을 놔두고 뒷문으로 다녀야 했던 조는 중국인이었고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이유였다.

어릴 때부터 고아였던 조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올드 진’과 단둘이 겨우겨우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60대에 접어든 올드 진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거리에서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무허가 약들로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약국에서 정식으로 파는 약을 구해야 했다. 즉 생활비와 별도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푼이 아쉬운 판국에 2년 넘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던 곳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다. 사장은 손님들에게 칭찬을 퍼부어서 모자를 사게끔 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인 조는 손님이 얼굴형이나 피부 톤, 몸매와 영 안 어울리는 모자를 쓰면 바로 뜯어말렸다. 창피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는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손님을 진심

으로 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장 눈에는 ‘중국인 주제에’ 말도 많고 주관적인 의견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졌고, 그 고까움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내보낸 것이다. 백인 직원이 그랬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지는 않았으리란 사실을 조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화만 내고 있을 여유도 없었다. 다급히 새 일자리를 찾던 조는 애틀랜타에서 재산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페인 가문의 대저택에 하녀로 들어간다. 그리고 얼마 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싸늘하고 버릇 없는 딸 캐롤라인의 시중을 들라는 지시를 받는다. 어린 나이에도 남부의 부잣집 백인들이 대부분 그렇듯 노예나 부리는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만함이 몸에 배인 캐롤라인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건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에 풀리는 조에게 하루 종일 입을 꼭 다물고 억지나 다름 없는 캐롤라인의 요구와 지시를 따르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얼마 후 찾아낸, 아주 특별한 취미에 점점 몰두한다. 바로 ‘더 포커스’라는 신문에 ‘미스 스위티’라는 필명으로 다양한 조연을 들려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포커스’ 사무실은 올드 진과 조가 집값을 내기 않기 위해 몰래 숨어 사는 건물에 있었다. 노예 폐지론자들이 기차로 노예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만들었다는 지하 공간을 마음씨 좋은 이웃의 도움으로 알게 된 조는 이사온 직후부터 그곳이 위세가 대단한 집안인 벨 가문 소유의 신문사 건물임을 알고 있었다. 마치 나이 지긋하고 세상물정에 밝은 노부인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주로 부유층 젊은 여성들이 귀 기울일 만한 여러 조연을 위트 넘치는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조의 칼럼은 연재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다. 처음에는 패션이나 경마, 일상생활의 불편함, 연애 같은 가벼운 주제를 다루던 조는 시내에 나가면 다들 ‘미스 스위티’ 이야기를 할 만큼 자신의 글이 화제가 되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과감히 꺼내기 시작한다. 여성의 투표 참정권과 심각한 인종 차별 문제까지 거론되자 익명의 작가가 쓴 것으로 알려진 이 칼럼을 누가 쓰고 있느냐는 호기심은 날로 증폭된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의견과 따끔한 충고를 해온 사람이 지하실에 몰래 숨어사는 중국인, 그것도 열일곱 살밖에 안 된 소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까? 하지만 사태는 조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간다. 인종과 성별에 관한 미스 스위티의 노골적인 발언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웃어 넘길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칼럼 작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 즈음, 조는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진실도 알게 된다. 어릴 때부터 늘 간절히 만나고 싶었고 그리워했던 엄마가 바로 코앞에 살고 있었다는 것, 바로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를 악물며 시중을 들고 있는 캐롤라인의 엄마 페인 부인이 친모이고 자신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하인이던 생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나온 유색인종 딸이라 버린 것이라는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한 조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다. 미스 스위티의 칼럼, 그리고 고통스러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조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뿌리 깊은 미국의 인종차별 역사와 정체성, 가족의 의미를 유려한 문장으로 담아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테이시 리(Stacey Lee)는 PEN 센터 USA 문학상 YA 부문을 수상한 『Outrun the Moon』과 소설 『Under a Painted Sky』를 쓴 작가다. ‘We Need Diverse Books’의 창립자이기도 하다.